

SUNBO NEWS

주요소식

가족문화를 실천하는 우리 회사

선보가족 자녀 여름 캠프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2015 선보가족 자녀 여름 캠프'를 양산 통도 환타지에서 진행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로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사례는 많았지만 1박 2일 임직원 자녀 캠프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청옥 상무를 비롯해 박문염 부장, 박성호 부장 등 총 22명의 임직원 자녀들이 이번 캠프에 신청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출발 전부터 표정에 설렘이 가득했다.

이번 행사의 안전을 위해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5명을 전담 선생님이로 초빙해, 1박 2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밀착 동행했다. 우리 회사는 캠프에 함께 동행하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서 '실시간 카메라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캠프에 동행하지 못한 부모들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녀들의 캠프 참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캠프의 모든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 교육으로 자녀들의 참여와 호응을 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1일차 저녁에는 자녀들의 장기자랑을 시작으로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이 이어졌다. 자녀들의 깜찍한 재롱파티에 보답이라도 하듯 부모들도 무대에 올라 함께 어울려 노래 부르며 즐겼다. 1일차 교육을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집으로 귀가했다. 오롯이 자녀들만 남은 2일차 캠프에서는 간단한 안전교육을 마치고 '통도 아쿠아 환타지아' 파도 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캠프를 완료했다.

이번 자녀 여름 캠프는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회사 측에서 임직원 가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 회사는 향후 다양한 가족 참여 문화 행사를 마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장 현장 시찰 차 우리 회사 방문

지난 8월 20일(목) 우리 회사에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서동경 본부장이 방문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선, 해양 등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인프라와 부산대학교 등 대학교와 연구소를 기반으로 하여 R&D 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지정되었다. 서동경 본부장 일행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도 불구하고 다대1, 2, 3공장, 영도공장, 그리고 구평공장을 투어했다. 특히 구평공장에서 DSEC와 공동 개발 중인 수처리 시설에 관심을 보이며 꼼꼼히 시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동경 본부장은 우리 회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확신하며 우리 회사 방문 일정을 마쳤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 본부장 기업 지원 프로그램 차 우리 회사 방문

지난 8월 31일(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 정우창 본부장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 회사를 비롯해 동남권 중소·중견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우창 본부장은 우리 회사 현장을 함께 투어하며 제품설계, 생산공정 분석, 시제품 제작 등 여러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을 체크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우리 회사는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성장가능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동남권 중소·중견기업들의 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회사소식

의지의 선보인입니다! 우리는 무적신입사원

PSA선보아카데미 신입사원 교육이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 회사에서는 지난 8월 24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PSA선보아카데미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24일(월)부터 26(수)일은 본사에서 실무 위주의 교육과 자신의 기본소양 파악, 직장 예절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27일(목)부터 28일(금)부터는 경주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합숙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신규 입사자도 포함해 올 하반기에 입사한 27명의 신입사원이 참석했다.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본사 교육장에서 3일동안 진행된 교육에서는 회사소개와 PLUS2020 VISION 교육과 더불어 전산교육,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투어를 진행하여 회사의 이념과 실무를 익혔다. 신입사원들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

이 앞으로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구석구석 투어를 다니며 선배님들에 인사도 드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양일간 진행된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은 선보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합숙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 오후에는 ‘극기의 선보인’이 진행되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미션을 수행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극기의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미션을 완료했다. 특히 처음에는 팀별 경쟁구도였지만 점차 경쟁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뒤쳐진 동료를 끌어주는 등 신입사원들의 놀라운 단결력을 엿볼 수 있었다.

신입사원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 연극과 합창으로 팀을 나눠 색다른 공연을 준비했다. 연극은 최금식 대표이사의 성공스토리를 담았으며 합창은 우리 회사 사가 ‘선보가족’을 준비해 맹연습에 돌입했다. 신입사원들의 연극과 합창은 다가오는 10월에 임직원과 부모님을 초대해 공연할 예정이다.

PSA선보아카데미 신입사원 교육의 마지막 날 아침은 신입사원들의 긴장을 풀고, 활기찬 하루 시작을 위해 힐링 요가로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SUNBO WAY 테스트’가 이어졌다. SUNBO WAY 테스트는 우리 회사의 지난 역사와 실무 등의 문제가 출제됐다. 열정 가득한 2015년 신입사원들의 성적은 모두 상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특히 플랜트 설계 이무호 사원은 90점 이상 획득으로 1등을 기록했다. 신입사원들은 “사회의 첫발을 선보공업과 함께 해서 좋고, 동기들과 함께 그 첫 발을 내딛어서 좋습니다.”, “교육을 통해 동기들과 많이 친해져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자 동기들이!” 등의 소감을 남기며 이번 PSA 신입사원 교육은 마무리 되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들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졸업소식

코스모스 졸업한 3인의 선보인에 대한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21일(금)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인 총무팀 전해정 사원, 자재조달팀 김성한 사원, 생산관리팀 서유덕 사원이 가을학기 졸업인 일명 코스모스 졸업을 했다.

이 세 명은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일이 힘들었

을 텐데도, 힘든 내색 없이 꿋꿋이 학업을 마무리하는 의지의 선보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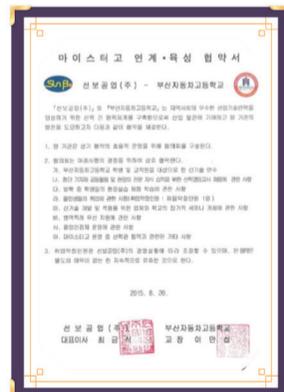
총무팀 전해정 사원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비서학과, 자재조달팀 김성한 사원은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생산관리팀 서유덕 사원은 부경대학교 제어계측학과를 졸업했다.

각 부서에서는 팀원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꽃다발, 졸업 선물을 지급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꿈의 날개를 활짝 펴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졸업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졸업자 3명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 회사 모든 임직원이 응원합니다!

회사소식

마이스터고 연계·육성 협약 부산자동차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0일 부산 마이스터고 부산자동차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협약했다. 우리 회사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어왔다.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meister)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개념으로 현재 부산에는 국립 해사고등학교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사와 협약을 맺은 부산자동차고등학교를 포함한 단 3곳만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산학협력을 맺은 마이스터고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명을 우리 회사 설계팀 실습생으로 선정했다.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는 생산직이 아닌 설계팀으로 채용했다. 향후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대학의 지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매년 산학협력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육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 Message

진정 미안하다면 이렇게! 사과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조건

첫 번째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다만' 같은 말은 덧붙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안해. 하지만 네가 약속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잖아"라는 표현은 사과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우며 역효과를 부른다.

두 번째 '무엇이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냥 "미안해"라는 말보다는 "내가 약속을 까먹은 바람에 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는 말이 더 효과적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라는 표현은 사실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는 얘기이므로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세 번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종종 잘못된 사람은 사과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과에 책임 인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개선의 의지나 보상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당신의 화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미안해" 라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을 때 이런 표현은 오히려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를 청해야 한다. 말 그대로 "나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가장 어려운 사과 표현이며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용서를 청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한 인간으로 낙인찍히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차마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잘 먹으면서 살 빼려면 어떻게

- 식사는 생체리듬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먹는다.
- 아침 식사를 거르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
- 각종 영양소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있게 영양 섭취
- 음주한 다음날 아침은 과일 채소주스만 마신다.
- 식단은 곡물, 식물성 동물성 식품 골고루 섭취
- 위장은 80%만 채우고 채소를 가급적 많이 먹는다.
- 설탕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요리 조합은 금물
- 단, 음식을 먹는 간식은 오후 3시 전후 5분 내 먹는다.
-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되 늦어도 1시간 내 먹는다.
- 저녁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식생활은 금물이다.
- 일어난 지 14시간 안에 세 끼를 모두 먹도록 한다.
- 식사는 수프, 채소요리, 메인요리, 밥 순서로 먹음

건강정보

어깨운동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활기차게

지난 호에 이어서 어깨운동에 좋은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업무 중에 목, 허리, 어깨 등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아마 어깨가 아닐까합니다. 현재는 통증이 없고 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어깨 스트레칭으로 여러분의 어깨건강을 챙겨보세요. - 좋은강안병원 재활치료팀 물리치료사 이동규

* 사진 출처 : 좋은병원들

막대를 이용한 팔 들기 운동



•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막대의 양끝을 잡는다.

외회전 운동



• 누운 자세로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린 채 어깨 넓이로 막대를 잡는다. 정상쪽 팔로 아픈팔 쪽으로 민다.

등 뒤에서 내회전 운동



• 선 자세에서 아픈 팔을 아래로 건강한 팔을 위로 하여 막대를 잡는다. 건강한 팔을 위로 뻗어 아픈 팔이 따라오게 한다.

테이블을 이용한 전방거상운동



• 의자에 앉아 팔을 테이블 위로 올린다. 허리를 숙여 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P.S.A

사하구보건소와 함께하는 하하하! 사업장 건강강좌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한 달여간에 걸쳐 사하구보건소와 사하구청에서 실시하는 하하하 사업장 건강강좌를 각 공장별로 실시하였다. 하하하 교육은 HA(Healthy ALOT)! HA(Happy ALOT)! HA(saHA) 약자로 건강, 행복, 사하구를 의미한다. 하하하 교육은 다대1공장을 시작으로 2,3공장, 구평공장에 이어 마지막 영도공장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하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심뇌혈관질환은 사전 예방 및 관리만으로도 심각한 후유증 및 조기사망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병이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에게 심뇌혈관질환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 수칙을 전달해 심뇌혈관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번 하하하 교육은 '금연과 금주'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H.S.E

ISO14001 & OHSAS18001 사후심사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ISO14001 & OHSAS18001 사후심사]를 진행하였다. 노르웨이 DMV의 최완규 팀장이 감독관으로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사는 각 사업장 별 점검일지와 결과보고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그리고 RA(risk assessment/위험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활동 방안 등 품질, 안전, 환경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경영 시스템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현재 시스템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회사의 목표이자 슬로건으로 내세운 PLUS2020을 이루어 내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략으로서 우리 회사의 경영 시스템이 평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사후 심사의 동시적 역할은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보완과 재점검은 임직원과 현장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안전사고예방과 현장의 원활한 생산 공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culture



8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매직·버블쇼' 관람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2일(토)에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매직·버블쇼'를 관람했다. 지난 6월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여파로 우리 회사도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한동안 가족 참여 문화행사를 연기했다. 지난 7월 20일 부산시에서 메르스 종식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가족 참여 문화행사였다. 오랜만에 마련된 가족 참여 문화행사에는 17가족, 총 70여 명이 참가했다.

회사에서 마련한 '매직·버블쇼'는 미술과 버블아트를 한

무대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남녀노소,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매직·버블쇼'는 공연 사이사이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단지 객석에 앉아 보는 공연보다 훨씬 즐거움을 더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재밌는 공연도 관람하고, 무대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구평공장에도 뒀다! '케이크 만들기' 행사 개최

지난 8월 27일(목) 저녁 6시에 구평공장 식당에서 '케이크 만들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본사와 본사 근처 휴터아트센터에서는 '케이크 만들기' 행사가 종종 개최되었지만 구평공장에서는 이번이 처음 진행이었다. 구평공장 직원들은 "이번에는 저희 구평공장에 직접 오셔서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을 해주시니 정말 좋습니다."라며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반겼다.

구평공장 임직원 20여 명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15개의 케이크가 만들어

졌다.

완성된 케이크는 그 자리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부모님들께 선물로 가져기도 했다. 그 중 김유미 계장과 권희정 사원은 자녀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함께 케이크를 만든 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로 딸과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라고 김유미 계장이 소감을 전해왔다.

본사에 이어 구평공장에서도 호평을 받은 '케이크 만들기' 행사는 다음 달에는 영도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유병창 (09.04) 레이마크 (09.07)
김동현 (09.08) 윤준호 (09.14)
김민성 (09.21) 이현우 (09.23)
조대훈 (09.25) 프리요 (09.25)
이우석 (09.26) 김정우 (09.27)
전철민 (09.29) 정지훈 (08.13)
이준호 (07.24)
- ☑ **구평공장** 성기욱 (09.06) 조병준 (09.07)
허경남 (09.07) 김정환 (09.12)
안계연 (09.15) 김도영 (09.24)
황 철 (07.23) 강화진 (08.08)
- ☑ **영도공장** 박우근 (09.22)
- ☑ **영암공장** 권상웅 (09.13) 최경식 (09.20)
하르사 (09.28)



임사 기념일

- ☑ **본사** 박상언 (09.01) 권성현 (09.01)
허 헌 (09.07) 명철환 (09.09)
김상진 (09.11) 김수환 (09.13)
이태훈 (09.13) 조현상 (09.23)
김승우 (09.24) 전민재 (09.26)
이준우 (09.27) 고중현 (09.27)
- ☑ **구평공장** 이동준 (09.21) 김유미 (09.26)
- ☑ **영도공장** 최성호 (09.14)
- ☑ **영암공장** 최경식 (09.04) 설상태 (09.10)
상 크 (09.15)